

漢大의대 류머티즘성 관절염 試藥 개발
 三星電管 고해상도 그래픽 보드 개발
 現代電子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개발

▲ 漢大 의대

류머티즘성 관절염(RA)을 95%까지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새 시약이 국내 처음으로 대학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13일 漢陽大 醫大 金伸圭 교수팀(임상병리학 교실) 몇몇 특정인의 구강내 점막 세포에만 있는 핵주변인자에 대한 항체인 抗핵주변인자(APF)를 表識字 항체로한 새 RA진단법을 개발했다.

金교수는 이 방법이 기존 RA를 진단하는데 쓰인 혈청학적 류마토이드 인자검출법이 갖는 여러가지 단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자 검출법은 성인 환자의 25% 가량에서 인자검출이 안되거나 결핵 등의 다른 질환자에게서도 이 인자가 나오고 소아 환자의 경우 10% 미만에서 검출되는 등 특이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항핵주변인자를 이용하면 성인환자의 95%, 소아환자는 90% 가까이 특이도를 보인다고 金교수는 설명했다.

金교수가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이 시약의 핵심요소는 항핵주변인자이다. 핵주변인자는 특별한 몇몇 정상인의 구강내 점막세포에 있다. 이 점막세포의 핵 주위에 여러개의 균질한 원형입자가 관찰되는데 이것이 핵주변인자이다.

▲ 三星電管

三星電管이 국내 처음으로 퍼스컴용 전문 고해상도 그래픽보드(모델명 STG-280)를 개발, 곧 시판한다.

이 회사가 총개발비 5억원을 들여 三星종합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제품은 美 TI社의 최신 그래픽프로세서와 칩 세트를 사용, 다양한 모니터의 접속을 위한 BNC 및 15핀 커넥터를 동시에 제공하며 해상도가 뛰어나다.

또 동일사양의 외국제품에 비해 부품수를 최소화하였고 호환성을 향상시켜 처리속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 고해상도 그래픽보드는 CAD·CAM 등의 디자인 엔지니어링, 과학영상화,

화상통신분야 등에 활용되는데 그래픽 전용프로세서로 이를 처리하고 영상메모리 기능을 별도로 갖고 있어 속도와 해상도가 뛰어나다.

▲ 現代電子

現代電子는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각종 장치를 선택해 쓸 수 있는 홈오토메이션(HA) 시스템을 개발했다.

14일 現代電子는 이번엔 선보인 제품이 통화 유니트에 안전장치 원격제어장치 등을 필요에 따라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3인 이하 가족의 경우 통화 유니트에 비디오를 연결, 도어 비디오폰 기능과 가전기기 작동예약 원격제어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5인이상은 화재 가스 방법과 비상음성통보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現代電子는 이 제품을 오는 11월부터 시판한다. <♣>

발명하는 국민되어
선진조국 앞당기자